

2019년 10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기대 확산으로 강세 트럼프, “중국과 2 단계 협상은 더 쉬울 것”

미 증시 변화요인: 브렉시트, 커들로, 트럼프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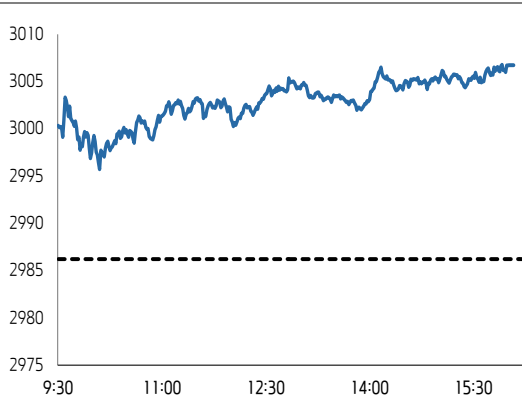
미 증시는 커들로 발언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출발했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한때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음. 그러나 장중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기술주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강세폭을 재차 확대. 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일부 종목의 부진으로 상승폭은 제한(다우 +0.21%, 나스닥 +0.91%, S&P500 +0.69%, 러셀 2000 +0.95%)

미 증시는 브렉시트와 중국과의 무역협상 이슈로 변화. 지난 19 일 영국 의회는 EU 와 합의된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대한 표결을 21 일로 연기. 이후 존슨 총리는 EU 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 그러나 영국 하원의장은 동일 회기안에 동일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추가 표결을 불허. 더불어 프랑스 정부 또한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발표하고, EU 에서는 영국 상황이 분명해진 뒤 결정 할 것이라고 언급해 불확실성 지속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대는 확산되며 미 증시 상승을 이끔.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어, 12 월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라고 주장. 특히 1 단계 합의된 내용이 잘 진행되면 12 월 관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해 APEC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확산. 장 중 트럼프 또한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 진행 되고 있으며, 2 단계 합의는 1 단계 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며 향후 전망 또한 기대를 높임. 시장에서는 2 단계 주요 논쟁은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문제와 함께 1 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던 위안화 절상과 금융서비스 개방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강세. 특히 반도체 등 기술주, 금융주, 물류 및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주도. 결국 브렉시트 이슈가 부담을 줬으나,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64.84	+0.20	홍콩항셱	26,725.68	+0.02
KOSDAQ	649.18	+0.39	영국	7,163.64	+0.18
DOW	26,827.64	+0.21	독일	12,747.96	+0.91
NASDAQ	8,162.99	+0.91	프랑스	5,648.35	+0.21
S&P 500	3,006.72	+0.69	스페인	9,402.30	+0.78
상하이종합	2,939.62	+0.05	그리스	867.16	+0.53
일본	22,548.90	+0.25	이탈리아	22,478.19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8%

마이크론(+4.03%), NVIDIA(+2.90%), 퀄컴(+1.67%) 등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마이크로칩 테크(+2.92%)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8% 상승했다. 한편, 유니온퍼시픽(+3.45%), CSX(+3.03%) 등 철도 물류회사를 비롯, UPS(+1.00%), 페덱스(+1.42%) 등도 미국의 대 중국 추가관세 부과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했다. 애플(+1.73%)은 저가형 SE 제품 출시등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스카이웍(+2.42%), 아나로그디바이스(+1.49%)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JP모건(+2.48%), BOA(+2.21%)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할리버튼(+6.40%)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솔름베르거(+3.96%) 등 원유 서비스 업종과 코노코필립스(+3.73%) 등 에너지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보잉(-3.76%)은 737맥스 사태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로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조정 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3%	대형 가치주 ETF(IVE)	+0.86%
에너지섹터 ETF(OIH)	+3.69%	중형 가치주 ETF(IWS)	+0.74%
소매업체 ETF(XRT)	+1.19%	소형 가치주 ETF(IWN)	+0.96%
금융섹터 ETF(XLF)	+1.39%	대형 성장주 ETF(VUG)	+0.71%
기술섹터 ETF(XLK)	+1.08%	중형 성장주 ETF(IWP)	+0.4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7%	소형 성장주 ETF(IWO)	+0.88%
인터넷업체 ETF(FDN)	+1.27%	배당주 ETF(DVY)	+0.67%
리츠업체 ETF(XLRE)	+0.6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0%
주택건설업체 ETF(XHB)	-0.0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8%
바이오섹터 ETF(IBB)	+1.28%	미국 국채 ETF(IEF)	-0.37%
헬스케어 ETF(XLV)	-0.11%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19%	물가연동채 ETF(TIP)	-0.32%
반도체 ETF(SMH)	+1.88%	Long/short ETF(BTAL)	-0.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8.49	+1.86%	+0.22%	-5.36%
소재	359.34	-0.35%	+0.72%	-1.61%
산업재	652.36	+0.61%	+0.95%	-0.44%
경기소비재	963.29	+0.47%	+1.84%	+1.36%
필수소비재	625.49	+0.33%	+0.59%	+0.70%
헬스케어	1,060.84	-0.07%	+1.99%	+0.11%
금융	473.09	+1.42%	+2.88%	+1.14%
IT	1,434.96	+1.07%	+0.30%	+1.51%
커뮤니케이션	171.19	+0.42%	+1.95%	+0.71%
유틸리티	325.13	+0.37%	+0.90%	+0.19%
부동산	248.76	+0.70%	+2.37%	+2.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세 지속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438 계약 순매수 데 힘입어 1.30pt 상승한 275.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1.59 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에 반응을 보였다. 특히 커들로 위원장이 1 단계 협상안에 대해 서명이 진행되면 12 월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취소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커들로 발언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12 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미 소매협회는 올해 연말 쇼핑시즌 매출이 5 년 평균(yoy +3.7%) 보다 많은 전년 대비 3.8~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재 중심의 추가 관세가 취소된다면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이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상승한 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더불어 애플(+1.73%)이 내년 초 저가형 SE 모델 출시에 따른 판매량 급증 기대 속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종목들의 변화 또한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물가 안정

9 월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해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한편, 전년 대비로는 예상(yoy -0.3%) 보다 감소폭이 적은 전년 대비 0.1% 감소에 그쳐 물가가 안정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9 월 중국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8.8%)를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특히 사우디가 쿠웨이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카프지와 와프라 지역 유전의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지역은 하루 50 만 배럴 공급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 4 년동안 가동 중단되었던 곳으로 이번에 재개 되면 공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라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와 NDF 달러/원 환율은 무역협상 기대 속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특히 커들로가 1 단계 합의가 진행되면 12 월 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취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점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더불어 트럼프 또한 2 단계 협상은 더욱 쉽다며 기대를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일부 상승폭이 축소 되었다.

금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 확산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소폭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철근도 0.5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31	-0.87	-0.52	Dollar Index	97.334	+0.05	-1.14
브렌트유	58.96	-0.77	-0.66	EUR/USD	1.1149	-0.16	+1.11
금	1,488.10	-0.40	-0.63	USD/JPY	108.62	+0.16	+0.20
은	17.602	+0.14	-0.61	GBP/USD	1.2960	-0.18	+2.79
알루미늄	1,729.00	-0.52	+0.52	USD/CHF	0.986	+0.06	-1.13
전기동	5,828.00	+0.38	+0.17	AUD/USD	0.6867	+0.16	+1.36
아연	2,473.00	+0.65	+2.19	USD/CAD	1.3086	-0.31	-1.12
옥수수	387.25	-0.96	-2.64	USD/BRL	4.131	+0.43	+0.09
밀	523.50	-1.64	+2.45	USD/CNH	7.0703	-0.02	+0.01
대두	933.25	-0.08	-0.77	USD/KRW	1172.00	-0.80	-1.09
커피	96.35	+0.68	+1.58	USD/KRW NDF1M	1171.59	-0.55	-1.0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01	+4.74	+7.20	스페인	0.282	+3.90	+7.30
한국	1.669	+7.70	+18.50	포르투갈	0.233	+3.60	+6.00
일본	-0.125	+0.60	+5.40	그리스	1.313	+0.90	-10.90
독일	-0.344	+3.80	+11.30	이탈리아	0.982	+5.70	+7.10